

2007년 『월간양계』 선정 10대뉴스

>> 홍보 팀 <<



1 양계산업 불황 장기화

양계업계 전반적으로 불황이 지속되었다. 계란가격은 지난해 특란 평균 가격인 개당 100원이던 것이 11월까지 97원을 기록했으며, 육계가격은 지난해 kg당 1,200원 이던 것이 1,060원으로 낮게 유지되었다. 특히 육용병아리 가격은 지난 3월부터 100~200원대를 기록하면서 육용종계업계의 불황을 여실히 보여 주었다. 이 같은 불황은 지난해 말부터 이미 예고된 상황이었다. 산란계의 경우 사육수수가 사상 최고치인 5천7백만수를 보이면서 현재까지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육계의 경우에도 원종계가 지난해에 이어 큰 폭의 수입증가가 이어지면서 내년도 양계경기도 장담할 수 없게 되었다. 물론, 2003/04년 발생된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이후 양계경기가 1년반 가까이 호황을 누리면서 생산을 늘려온 것이 불황의 주요인으로 작용하였지만 불황을 극복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이 없었던 것도 문제로 지적되었다. 당장의 이익이 아닌 불황탈출을 위한 거시적인 방안이 하루 빨리 도출되기를 기대해 본다.



2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피해 확산

'03/'04년 AI발생으로 큰 피해를 경험한 이후 지난 '06년 11월 전북 익산을 시작으로 금년 3월초 충남 천안까지 7건의 HPAI가 발생하면서 양계업계에 피해를 가져왔다. 이번 발생으로 총 460농가 2,800천수를 예방 살처분하고 570억원의 국고가 소진되었다. 마지막 발생지인 천안지역에 대한 방역조치가 5월 1일 해제됨에 따라 5월 2일자로 모든 지역에 대한 방역조치가 해제됐으며 6월 18일에 청정국 지위를 회복하게 되었다. '03/'04.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당시에는 종오리 중 일부가 HPAI에 무증상 감염된 채로 전국적인 유통망을 통해 이미 많은 전파가 이루어진 상태였지만, 이번 발생은 과거 HPAI 발생 당시 축적된 경험을 통해 정부 및 해당 지자체와 농가 및 생산단체가 심기일전하여 이전 발생 당시보다도 더 신속한 신고 및 예찰과 과학적인 역학조사와 정밀 진단기술 등을 기반으로 한 강력한 방역조치가 이루어지면서 7건의 발생으로 마감되었다. 정부에서는 이번에 발생된 7군데의 균주가 칭하이주로 동일하고 야생철새에서도 같은 균이 분리되었으며 일본에서 발생된 것도 동일하다는 전제하에 국내 발생 유입원을 철새로 보고 차단방역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국양계인 대회 7년만에 개최, 성공적으로 마쳐



지난 10월 19~20일 양일간에 걸쳐 충북 괴산 화양계곡 소재 화양청소년수련원에서는 2000년도 경남 김해에서 개최된 이후 7년만에 전국양계인대회가 1,400여명의 양계인 및 관련인들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번 전국양계인대회는 「21세기 양계산업의 생존전략」이라는 주제로 FTA,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등, 급변하는 국내외 양계산업 동향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하고 능동적인 변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방안을 강구하는 강연들이 진행되었다. 특히 AI 예방대책의 일환으로 '07년 동절기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이란 주제로 양계농가 중심의 자율적 차단방역의 중요성이 강조되기도 하였다.

이날 양계인들은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재발방지, FTA 적극 대처, 양계자조금 정착, 적정사육수수 유지 등을 결의하면서 양계인 대회를 계기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한미 FTA 타결 등 FTA 협상 확대



금년 4월 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협상개시 1년 2개월만에 타결된 이후 6월부터 한·EU FTA 협상이 진행되면서 시장개방 압력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한·미FTA 타결 이후 중국, 캐나다, 멕시코 등에서도 FTA 협상의지를 내비치는 등 우리나라도 자유무역협정이 여러 국가로 확대되면서 말 그대로 '무역과의 전쟁'이 시작되었다.

한미 FTA 협상 결과 농업분야에서는 쌀을 제외한 모든 품목들이 15년 이내에 관세를 철폐해야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면서 가장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축산분야에서는 생산자 단체를 중심으로 아직도 협상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불만이 표출되고 있다. 새롭게 시작된 한 EU 협상에서도 우리측은 닭다리, 닭가슴살 등 민감품목에 대해 협상 예외품목으로 규정하고 협상에 임하고 있지만 미국과의 협상에서 타결된 내용보다 더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미국보다 조건이 유리할 수 없다는 것이 전반적인 분위기이다. 정부는 폐업보상금 등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지만 농가들에게 납득할 수 있는 정확한 피해규모와 대책을 명확히 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5 '산란기계 닭' 과잉보도 파문

전 세계적으로 동물복지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국내 양계산업도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지난 5월 25일 KBS에서 방영되었던 환경스페셜 '산란기계 닭'은 동물복지를 표방하면서 양계업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케이지에서 생산된 계란이 방사된 닭에서 나온 계란보다 신선도와 품질면에서 떨어지는 실험을 한 것은 산란주령과 산란일자를 감안하지 않은 중대한 오류를 범하였으며, 육계와 산란계, 종계에 대한 기본 개념조차 없이 설명과 화면과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더욱이 부리자르기는 카니발리즘 방지는 물론 사료허실 방지를 위해 필요함에도 이러한 내용없이 부리가 잘못된 닭을 마치 디비킹을 잘못하여 생겨난 것인양 비추었고, 영양제제가 급수기에서 흐르는 것을 마치 항생제를 흘려보내는 것처럼 오인시켜 모든 닭들이 항생제 투성이인양 보도를 내보내기도 하였다. 60분간 방송을 내보내면서 잘못된 내용은 10여군데 이상이 발견되었고, 방송에 출연한 전문가들은 양계분야에는 문외한인 비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양계산물 안전성 문제도 중요하지만 사실을 왜곡한 방송은 앞으로는 제고되어야 할 것이며, 전문가가 아닌 작가나 PD들로부터의 방송기획 또한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도 금년에 동물보호과가 개설되었고 2008년부터 동물보호법이 강화되어 발휘되기 때문에 동물복지 문제는 앞으로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6 옥수수 바이오 연료 생산에 따른 사료가격 상승 지속

최근 사료의 주원료로 공급되는 옥수수가 바이오에탄올의 연료로 사용되면서 사료업계 및 축산업계가 사료가격 상승으로 비상이 걸렸으며,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 지속될 것으로 내다보았다.

지난해 3/4분기 이후 국내 사료가격은 지금까지 3차례(23%) 인상되면서 양계산물 생산비에 큰 부담을 가져왔다. 문제는 사료원료의 95% 이상을 수입원료에 의존하고 있는 국내 사료업계가 국제적인 흐름을 피해갈 수 없다는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옥수수를 수출하는 곳은 미국, 호주, 유럽을 들 수 있으며, 나머지 국가들은 자급위주로 활용되고 있다. 국내 최대 수입국인 미국은 평년에 6천만톤 가까이 옥수수를 생산하고 있으면서도 재고율이



16-18%에 달했지만, 지난해의 경우 재고율이 6-7%로 크게 줄어들면서 국제 옥수수 가격 상승을 주도하였다. C&F가격으로 톤당 120불정도로 국내에 도착하던 것이 이제는 220불까지 상승하였고 더 이상의 하락은 기대하기 힘들게 되었다. 최근 고유가시대와 맞물려 축산업계에 큰 위기가 예상되고 있다.

7 불법 종계·부화장 고발센터 출범

종계·부화업계와 토종닭 업계가 질병전파 등 양계업계에 피해를 입히고 있는 불법 종계·부화장에 대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불법 종계·부화장 고발센터가 설치, 운영되었다.

이런 가운데 몇 농가는 불법적으로 토종닭을 생산, 판매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축산법 등 관련법규에 따라 행정조치가 취해지는 등 이미 불법 종계·부화장에 대한 고발조치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과거에도 무등록 종계·부화장은 물론 불법 종계·부화장에 대한 고발의 문이 열려있었지만 거의 고발 건수가 미미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런 실정이다 보니 불법적으로 업을 경영하더라도 아무런 가책도 없이 업이 이루어져 왔다. 본 센터가 운영될 경우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고 있는 백세미에 대한 문제도 해결책을 찾아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본 센터의 설치운영을 계기로 오랫동안 묵인되었던 무등록종계·부화장에서 생산되는 종란과 병아리, 불법 토종닭 생산을 근절하는데 큰 몫을 해주길 기대해 본다.



8 자율방역 강화차원으로 제3종 가축전염병 신설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음으로써 축산업의 공공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제3종가축전염병이 신설되었다.

이번에 신설된 제3종가축전염병은 농가에서 관리가 가능하고 제1종가축전염병에 준하여 적용을 받던 제2종가축전염병과 차별성을 두기위해 취해진 조치이다.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제정된 제1종가축전염병은 뉴캐슬병과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로 종전과 변화가 없으며, 제2종가축전염병에는 추백리, 가금티푸스, 가금콜레라가, 제3종가축전염병에는 닭마이코플라즈마, 저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가 각각 선정되었다. 또한 농림부령이 정하는 그 밖의 가축 전염성질병으로 닭뇌척수염(AE), 닭전염성후두기관염(ILT), 닭전염성기관지염(IB), 마렉(MD), 닭전염성에프낭병(IBD)이 여론수렴을 거쳐 시행령에 3종가축전염병으로 분리되었다.

따라서 3종으로 분리된 가축전염병은 자체적인 질병관리가 가능한 만큼 이동제한의 규제가 완화되어 시군과 농가들간의 불협화음이 줄어들 것으로 보여진다.

9 육계의무자조금 사업 본격적인 궤도 진입

육계의무자조금 사업이 여러 차례의 산고 끝에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다. 육계의무자조금추진위원회는 지난달 말 서면결의 형식으로 대의원총회를 개최한 결과 12명으로 구성된 관리위원과 감사를 최종 확정함으로써 본격적인 자조금사업의 궤도에 돌입한 것이다.

지난 2002년 4월 축산물의소비촉진등에관한법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2004년 11월에 자조금사업을 위한 공동준비위원회(양계협회, 농협, 계육협회)가 구성되면서 2005년 말부터 육계의무자조금 대의원총회를 개최하였으나 매번 정족수 부족으로 인해 4차례나 무산되면서 무산의 위기를 맞이하기도 하였다. 대의원 서면결의를 통해 난제로 대두되던 관리위원이 선정되면서 자조금 사업에 전기를 마련하였으며, 앞으로 자조금 사업계획 및 사무국 설치 등 발빠른 행보가 예상되고 있다.

10 닭고기 포장유통 의무화 시행



금년부터 1일 도계수가 8만수 이상인 도계·도압장에 대해 포장유통 의무화가 시행되었다. 하지만 당초 기대와는 달리 생산비 상승으로 인한 소비자 부담확대와 더불어 포장을 위한 도계공정의 체계적 정비가 걸려왔다는 지적도 제기되었다.

포장유통은 닭고기 또는 오리고기의 오염을 방지하고 품질을 유지하여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산물을 공급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외국산물과의 차별화를 통해 수입 닭고기를 최소화 시키는데도 그 의의를 두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닭고기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포장유통을 의무화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시행을 지켜보며 용기 표시사항 정비를 비롯해 가공식품의 경우 사용된 모든 원재료와 영양성분표시에 대해서도 의무적으로 표기토록 할 방침이다.

2008년부터는 5만수 이상 처리하는 도계·도압장에 대해 포장유통 의무화가 시행된다. **양계**